광주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 의료체계' 추진

'K-Health 구축사업' 2단계
의료기관 대상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미래 의료를 선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K-Health사업)' 1단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광주지역 138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점인 2025년까지 광주와 여수, 목포 등 인근 5개 도시 병·의원 450여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Health사업은 도시 전역 병의원의 의료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클라우드 연계를 통해 시민들과 의료진들에게 한층 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AI진단지원서비스, AI앰뷸런스 등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한 질병 진단 서비스와 긴급 후송되는 중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폐질환진단 등 총 21종의 AI 진단솔루션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에 도입돼 진료 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성이 높은 우수한 진단솔루션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와 광주지역 응급의료센터에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뷸런스)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원 현황을 AI로 분석해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진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은 현재 8대의 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 5개소에 설치했으며, 2025년까지 소방본부 38대 구급차 전체와 지역 전체 응급의료센터 20곳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시범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헬스케어 실증센터)를 동구 창업지원센터(서석동)와 서구 서빛마루복지관(풍암동) 등 2곳에 추가로 구축해 시민의 기초체력 측정 등 개인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개인이 자신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앱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시민들은 앱을 통해 자신이 방문한 병·의원 진료·의료영상·건강정보 등 의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상담도 가능해진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까지 별도로 마련해 개인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K-Health사업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AI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에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시 올 첫 추경 7조2318억원 확정

가뭄극복·민생안정 등 반영

올해 광주시 예산은 7조2318억원으로 확정됐다. 본 예산인 7조110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을 마무리했다.

가뭄 극복, 민생 안정, 창업, 산업, 근로복지를 위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216억원 증액 예산안 대부분이 반영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 용역비 7억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재반영됐다.

광주 상생카드 발행 지원 106억원, 창업 기업 제품 실증 30억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70억원, 창업페스티벌 1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42억원, 지역 유니콘 육성 10억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청사 시민 편의 공간 조성 1억4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억원, 뷰티 기술 영상콘텐츠앱개발 1억5000만원은 삭감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광주시장·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4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2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처리했다.

정무창 의장은 "경제위기로 민생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훈풍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민선8기에 계획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가시화돼 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시즌 2 서울페스티벌 부대행사인 전남 관광 홍보관을 방문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육대회 부스 등 22개 시·군 홍보부스를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23년 전국체전 붐업'… 전남도, 수도권서 대대적 홍보

서울페스티벌 연계 홍보관 운영

전남도가 오는 10~11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붐업을 위해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해 문을 연 전국체전 홍보관에선 체전 홍보영상 송출, 체전 상징물 전시, 홍보 배너·백드롭 게시, 풍성한 홍보 이벤트로 관람객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관람객에게는 휴대전화 그립톡, 보조배터리, 칫솔·치약 세트, 방역 마스크, 볼펜 등 홍보 물품을 증정하고 있다.

체전 마스코트 '생명이', '으뜸이'와 무료 촬영 이벤트를 비롯해 즉석 사진 촬영(인생네컷) 서비스는 축제장을 찾은 엠지(MZ) 세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많은 시민이 오가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 전국체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뿌듯했다"며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남에서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르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